

朝鮮後期 濟州島史 研究現況과 課題

權 仁 赫*

I

이 글은 “濟州島史 再照明”이라는 大主題 하에 조선후기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간에 이루어진 研究成果를 재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모색은 이미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에서 시도되어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Ⅱ): 考古·歷史分野>《耽羅文化》2, 1983,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歷史學的 側面>《耽羅文化》3, 1984이라는 글이 발표된 바 있다. 前者는 해방 후부터 1979년까지 제주도의 고고·역사에 대한 전반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그 연구논저 목록을 뒤에 수록하였고 後者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사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업적을 토대로 그 후의 연구성과를 종합 검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歷史學은 본래 인접학문(考古學, 人類學, 社會學, 民俗學 등)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여 그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通史의이거나 시기구분에 있어 朝鮮前期 또는 最近世 分野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論外로 하였다. 다만 주요 관심이 이 시기(倭亂後~門戶開放)에 설정된 것이면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記述의 순서는 이 분야 업적들을 數量的으로 파악해 현재의 연구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에 각 분야별 연구동향과 성과

* 제주대·한국사

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앞으로의 과제·방향 등을 전망할 것이다.

II

여기서의 數量的 파악은 단순한 統計的 意味를 갖는다. 환언하면 각 분야별 연구업적을 計量的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한 外形的 成果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조선후기 제주도사 분야별 연구업적 ()%

分 野 目 次 時 期	政 治		社 會	經 濟	文 化		計
	漂到	民亂	政治	人 口	農 業	人物 地理 資料	
1960년대 및 以前	5	2 (35)	·	1 (5)	1 (5)	9 · (55)	2 20 (100)
1970년대	2	1 (18)	3	·	·	16 1 (82)	11 34 (100)
1980년대 前半期	·	1 (13)	·	1 (13)	·	1 1 (75)	4 8 (101)
計	7	4 (23)	3	2 (3)	1 (2)	26 2 (73)	17 62 (101)

備考: 對象資料는 부록 참조.

위 <표>의 분석대상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耽羅文化》2에 수록된 논저들이고 1980년대 이후 것은 필자가 接할 수 있었던 것에 한정하였다. 1960년대 및 그 이전 시기의 글로서 政治分野가 7편(35%), 社會分野 1편(5%), 經濟分野 1편(5%), 文化分野 11편(55%)으로 총 20편이 발표되었고 1970년대는 政治分野 6편(18%), 文化分野 28편(82%)으로 총 34편이, 1980년대 前半期에는 政治分野 1편, 社會分野 1편, 文化分野 6편이 발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1960년대에는 漂到 5편, 民亂 2편, 人口 1편, 農業 1편, 人物 9편, 資料(解題, 번역 등) 2편으로 전 부문에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인물 소개가 그 중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970년대에는 漂到 2편,

民亂 1편, 政治(守令治績 등) 3편, 人物 16편, 地理 1편, 資料 11편으로 앞 경우와 같이 人物 比重이 높다. 1980년대 前半期에는 民亂 1편, 人口 1편, 人物 1편, 地理 1편, 資料 4편으로 현재까지는 數量的인 면에서 저조한 실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해 볼 때 朝鮮後期 濟州島史에 관한 연구는 人物, 資料紹介에 관한 文化分野가 73%, 漂到 등을 포함한 政治分野가 23%로서 그 중심적 성향임을 알 수 있고 社會, 經濟分野는 거의 미개척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이제는 각 분야별 연구동향과 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자.

1. 政治分野

이 분야에의 관심은 주로 漂到, 民亂 政治(협의)에 국한되고 있다. 漂到는 異國인이 제주도에서 漂着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洪以燮, 高柄翊, 金良善, 金泰能의 論攷가 있다. 洪以燮은 〈鄭東愈의 畫永編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1953)라는 글을 통하여 純祖 1年(1801) 濟州 唐浦에 來到한 5人の 出來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南方 土人임을 밝히고 이들이 다시 濟州 唐浦에 安置되는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異國人으로부터 採錄한 103條의 어휘를 분석해 그 대부분이 포르투갈語임을 밝혀기도 하였다. 高柄翊의 〈南方黑人の 濟州漂到〉(1960)는 앞 글과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中國·西洋側 資料를 인용하여 이들의 出自地가 마카오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의 所持 銀錢과 文字를 토대로 이들이 南方貿易에 종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金良善은 〈仁·孝兩朝 蘭人の 漂到와 韓·中·日國의 外交關係〉(1967)를 통해 벨테브레와 하멜의 漂着을, 金泰能은 〈旌義縣에 反淸漢人の 표창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1969), 〈和蘭船舶의 大靜縣漂着〉(1969), 〈反

淸漢人들의 濟州漂着》(1970), 《海上事故로 본 淸國과 濟州》(1971)라는 글을 발표해 和蘭人 하멜표류와 明末淸初 즉 孝宗, 顯宗時期에 제주에 표도한 反淸漢人(苗珍寶·林寅觀)의 淸國 送還過程 그리고 肅宗~純祖時期에 漂到 淸人의 본국 송환내용을 詳述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그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해상교통을 통한 인근 주변 지역과의 문물교류가 일찍부터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종 海難事故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대륙정세의 변동과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진출로 인해서 異國人的의 漂到와 異樣船의 출몰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방면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異國人的의 행적과 이들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또한 이들의 선박, 소지품을 통한 서양·중국의 기술·경제수준과 그들의 대외 무역관계 그리고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던 서양어 실태와 韓國古語 등을 이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의 존재양상과 관련지어 볼 적에 상기 논고들은 異國人들의 漂到 사실만 기술하고 있어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과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첫째는 漂到는 물론 다른 事由 등으로 인해 발생된 제주도 내왕의 異國人 記錄物을 광범위하게 부단히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시기 異樣船 출몰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軍事體制 究明과 그리고 빈번히 발생된 濟州人 漂流關係를 폭넓게 다뤄야 할 것이다. 後者의 濟州人 漂流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논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두가 見聞記의 性格의 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제주도를 이해하는데는 흠족치 못한 실정이다. 《濟州啓錄》《濟州牧關牒》 등 자료에 의하면 漂流人의 항해목적·목적지 등이 기술되고 있으니만치 이들 자료에 대한 검토 분석이 기대된다.

제주민란에 대해서는 金泰能, 金鎮鳳, 權仁赫의 논고가 있다. 金泰能의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1968)는 이 방면의 선구적 업적으로서 純祖代 평안도 洪景來亂과 관련시켜 梁濟海의 거사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난은 여타 민란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전제 하에 그 深淵에는 島民의 自主企圖

가 내재해 있다고 보고 그 촉발계기로서 지방관의 횡포, 제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과중한 進上貢物과 力役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哲宗時代의 濟州農民暴動〉(1972)에서는 세도정치 하에서의 國政紊亂과 각 지역의 민란을 열거하고 직접적 원인으로서 收取體制의 문란과 나아가 그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金鎭鳳은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대하여〉(1969)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사 전체 속에서 제주민란을 고찰하면서 난의 동기와 확대과정을 추적하였다. 火田稅濫徵에서 발단이 된 火田民의 거사가 農漁民의 참여로 더욱 확대됨을 밝히고 제주도 특유의 경제적 수탈과 내륙지 민란의 영향 그리고 島民의 끈질긴 기질 등이 복합되어 더욱 치열해졌음을 지적하였다. 權仁赫의 〈哲宗朝 濟州民亂의 檢討〉(1985)는 당시 민란 관계 사료인 〈濟州牧按覈狀啓 牘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서 민란 前段階의 箭竹刈取事와 농민 동원 과정을 밝히고 각 단계별 거사명분과 供草 대상자들의 신분, 거주지,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民亂은 통상 당시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과 관련해서 제기된다. 그럼으로 島民의 生活狀(사회, 경제면 등)을 이해하는데는 이 부분이 크게 주목될 수 있다. 특히 민란은 그 처리과정에서 按覈使 등이 파견되어 그 실상을 조사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당 지역의 사회, 경제상이 부분적이거나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난의 동기, 전개과정, 수습과정만 해명되어 실제 島民의 생존이 여하했는지는 미해결 상태이다. 여기서 상기 논고들의 한계가 드러난다. 물론 난의 외형적 고찰을 통해서 난의 규모, 주도층 등이 구명되고 또한 당시의 고질적인 邑弊民瘼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민란 발생이 장기간의 積弊에 기반한다고 할 때에는 이 시기의 제반 구조 즉 신분구조, 수취구조, 산업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戶口帳籍〉 〈戶口單子〉 〈量案〉 〈賣買文記〉 등의 1차 사료와 〈日省錄〉 등 제반 사료의 섭렵이 요청된다.

政治(협의)部門의 글로는 金泰能, 梁重海, 李承俊의 논고가 있다. 김태능의 <沈來復一黨의 謀逆事件>(1972)은 少論系 流配人인 沈來復 등이 英祖를 축출, 정권을 장악코자 한 반역행위를 취급한 것으로서 그의 유배배경, 모역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제주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梁重海의 <李衡祥牧使의 對佛政策>(1976)은 肅宗代 對佛策과 제주불교의 土俗性 그리고 이형상의 思想·行蹟을 검토하면서 종전 이형상의 對佛 強硬策에 대한 일부 문헌사실과 민간전승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李承俊의 <朝鮮朝 濟州牧民官의 立碑考>(1977)는 지방관의 立碑 관계를 조사하면서 특히 憲宗代 부임한 牧使 具載龍의 治績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 제주에 유배된 謫客과 지방관 통치에 대한 연구는 당시 도민생활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의 논고들은 이 분야의 개척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하겠다. 첫째는 流配人과 관련된 문제로 이들에 대한 시기별 총체적 파악과 그들의 동향, 그리고 이들과 주민과의 제반 관계 등이 추적되어야겠고, 둘째는 地方官 統治 문제로서 이들의 통치가 在地勢力과의 협력 하에서 가능하다 할 적에 당시 유력층인 吏校層과 士族層에 대한 구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역편제와 관련해서 面里制의 성립배경과 그 재편과정 그리고 자치기구인 留鄉所(鄉廳)의 성격과 기능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社會, 經濟分野

이 분야의 관심은 人口, 農業에 한정되고 있다. 그 중 인구문제는 金泰能, 韓榮國의 논고가 있고 농업문제는 金泰能의 글이 있다.

金泰能의 <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1966)는 도민의 생활상과 離散理由를 열거하면서 경상·전라지역에 이주한 제주민(俗稱 頭無岳)의 동태를 상술하고 나아가 제주인의 出陸禁止 배경과 그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韓榮國은 <豆毛岳考>(1981)를 통해서 豆毛岳(남해안에 거주한 제주민)의 발생배경과 이들에 대한 국가의 조치 그리고 18세기에 이 칭호가 소멸되는 과정에

관해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농업에 관한 金泰能의 〈고구마傳來와 周邊〉(1964)은 고구마(甘藷)가 한국사회에 전래되는 과정과 제주에서의 재배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재배법의 복잡과 저장곤란 등의 이유로 금일에서의 같이 널리 경작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 사회 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도민의 존재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 논고들이 취급치 않았던 다른 영역에까지 시야를 확대시킬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컨대 사회분야와 관련해서 당시의 신분구조와 그 변동양상(배경, 진행양상, 결과 등), 鄉村秩序 변동 속에서의 각 신분층의 상호관계, 그리고 鄉約·契·同族部落과 族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분야에서는 조선왕조의 농민지배와 관련해서 각종 수취체제(三政, 雜稅, 雜役)의 실상 그리고 농민의 존재양태와 관련해서 농민의 토사소유관계, 農法(기술, 농기구 등)과 농업생산력 문제, 농업경영과 水利문제 등이 열거될 수 있다. 또 농업 외에 상업, 수공업, 어업, 목축업 등 제반 산업에 대한 實證的 研究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文化分野

이 분야는 人物, 地理, 資料部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물에 관해서는 金泰能, 崔常壽, 韓贊爽, 高南俊, 金東醒, 金榮洽, 金亨翊, 文仁環, 咸元擇, 金寶賢, 秦元日, 權寧徹, 玄吉彦의 글이 있고, 지리부문에는 吳洪哲의 논고가 있다. 한편 자료관계 글로는 李丙燾, 金泰能, 金行玉, 朴用厚, 權寧徹, 梁淳玟, 鄭炳昱, 洪貞杓의 번역, 해제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등의 사료출간이 있다. (附錄參照)

人物은 지방관의 치적, 유배인의 행적 그리고 島民의 善行과 忠孝를 취급한 것이 대부분으로 거의가 傳記的 立場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權寧徹의 《瓶窩李衡祥研究》(1978)와 玄吉彦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李衡祥의 神堂철페에 대한 설화적 인식〉(1983)이 있는데 전자는 李衡祥의 생애, 사상, 저술을 다루면서 〈南宦博物〉 〈耽羅巡歷圖〉를

소개하고 있고, 후자는 진실해명으로서의 역사와 문학입장을 서술하면서 李衡祥 목사의 神堂철폐에 대한 실화적 인식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신당철폐에 대한 인식의 兩面을 열거하고 제주민의 생활과 신당, 신당철폐 배경과 그 과정, 갈등구조와 그 극복을 논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역사학의 최종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세 측면 즉 생물학적 존재로서, 사회학적 존재로서,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존재로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입장에서의 고찰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구조 속의 인간이 역사학의 주된 관심이 된다. 그럼으로 역사적 입장에서의 인물연구는 당시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물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관련된 각종 기록(行狀, 行錄, 遺事, 說話 등)과 金石文(墓誌銘, 墓碣銘 등)에 대한 검토 분석이 요망된다.

地理部門은 吳洪哲의 〈耽羅地圖의 性格〉(1973), 〈帆船航海時代의 濟·京海路〉(1984)가 있다. 전자는 韓國古地圖의 발달과정에서 〈耽羅地圖〉가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와 그 특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당시의 지리적 사정과 인간의 점유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조건으로 인한 해상교통의 필연성을 제기하면서 上京海路와 回路(日程, 區間), 경유지의 성격, 出陸者의 공간지식을 밝히고 있다.

위 논고들은 이 부문의 선구적 업적으로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즉 전체적인 역사발전의 시각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제주의 위치를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제주의 개개사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요구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 도내 지리사정과 관계된 각종 사료에 대한 검토 분석이 요구되는데 예컨대 각 邑誌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邑誌간의 상호 비교연구가 요망된다. 둘째는 이를 기초로 한 도내 산물, 기상, 교통망 등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資料部門은 크게 私撰과 官撰類로 나눌 수 있다. 私撰類는 주로 표류인, 유배인, 지방관, 按撫使(御史) 등 개인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고, 官撰類는 국가 입장에서 저술한 것이다. 전자는 《하멜표류기》《漂海錄》《濟州風土記》《耽羅誌》《南槎錄》《耽羅巡歷圖》《南宦博物》 등이 있고, 후자는 《濟州邑誌》《濟州·大靜·旌義邑誌》 등이 있다,

사실 각종 자료발굴과 출간 그리고 영인 및 해제 번역 등은 이 시기 이외 전 시기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절대적이고도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 까닭은 모든 역사적 연구가 이를 기초로 해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많은 자료발굴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방향에서의 자료탐색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기존사료중의 제주관계 사료에 대한 발췌작업이고, 둘째는 도외자료 탐색, 셋째는 도내자료 탐색이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朝鮮王朝實錄—濟州關係史料抄—》《備邊詞牘錄—濟州關係史料抄—》 등의 호칭으로 정리될 수 있고, 둘째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교·기관 도서관의 장서목록을 검토하고 제주와 관련된 인물(유배인 지방관 등)의 후손을 찾아 자료를 추적하는 것이다. 셋째와 관련해서는 古文書所在 파악에 대한 철저와 이에 관한 《古文書資料集成》이 이뤄져야 한다.

IV

이상에서 조선후기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論著들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이제 이를 종합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이 시기 제주도사 연구는 1960년대부터 그 기운이 조성되어 1970년대는 前代에 비해 거의 감절에 가까운 양적 팽창이 이뤄졌고 1980년대 前半期에는 그 기운이 反轉되어 점차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관심분야는 문화, 정치분야에 집중되었고 그 구체적인 양상은 人物, 資料(해제, 번역 등) 漂到, 民亂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인물, 자료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은 전체의 71%가 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해볼 때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향은 自明해진다. 즉 이 시기에만 국한된 것인지는 몰라도 제주도사에 대한 관심이 보다 고조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관심분야의 확대와 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조선후기 제주도민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그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부연하자면 도민의 존재는 당시의 권력구조와 수취구조 그리고 신분구조 및 산업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구조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先行되어야만 당시 도민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자료발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방면에 뜻있는 인사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어 왔지만 문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알게 모르게 각종 자료가 逸失되어 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종 자료에 대한 탐색발굴이 驛島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이 시기 제주도사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附錄〉 1945~1985년도의 논저목록(조선후기)

〈政治分野〉

1. 漂到關係

- 洪以燮：〈鄭東愈의 晝永論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歷史學報》4, 1953.
- 高柄翊：〈南方黑人的 濟州漂到〉《黃義敦先生 古稀紀念史學論》1960. 《叢東亞交涉史의 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0에 재수록.
- 金良善：〈仁·孝 兩朝 蘭人的 漂到와 韓·中·日國의 外交關係〉《鄉土서울》30, 1967.
- 金泰能：〈旌義縣에 反淸漢商의 표착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남제주》8, 1969.
 - ：〈和蘭船舶의 大靜縣 漂着〉《제주도》39, 1969.
 - ：〈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濟州新聞》1970. 11. 26~12. 8.
 - ：〈海上事故로 본 淸國과 濟州〉《濟州新聞》1971. 1. 7~1. 12.

2. 民亂關係

- 金鎮鳳：〈哲宗朝의 濟州民亂에 對하여〉《史學研究》21, 1969.
- 金泰能：〈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제주도》34, 1968.
 - ：〈哲宗時代의 濟州農民暴動〉《濟州新聞》1972. 6. 22.
- 權仁赫：〈哲宗朝 濟州民亂의 檢討〉《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5.

3. 政治關係

- 金泰能：〈沈來復一黨의 謀逆事件〉《제주도》54, 1972.
- 梁重海：〈李衡祥牧使의 對佛政策〉《濟州大論化集》7, 1976.
- 李承俊：〈朝鮮朝 濟州牧民官의 立碑考〉《교육제주》36, 1977.

〈社會·經濟分野〉

1. 人口關係

- 金泰能：〈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濟州》27, 1966.
- 韓榮國：〈豆毛岳考〉《韓祐勛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1981.

2. 農業關係

- 金泰能：〈고구마傳來와 周邊〉《濟州新聞》1964. 4. 28~5. 5.

〈文化分野〉

1. 人物關係

- 金泰能：〈金萬德의 飢民救濟功績〉《제주도》16, 1964.

- ：〈濟州飢民과 同苦한 牧使 盧鏡〉《濟州新聞》1964. 10. 29~11. 4.
 - ：〈李光彬의 長崎島 漂流와 그 氣風〉《제주서》1966.
 - ：〈濟州土俗과 川李 永牧使의 治績〉《제주도》30, 1967.
 -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영향〉《제주도》30, 1967.
 - ：〈牧使 金倣의 治績과 三泉書堂〉《제주도》40, 1968.
 - ：〈甲命圭 二代의 大靜縣 謫居〉《제주도》42, 1969.
 - 崔常壽：〈琉球王子의 濟州島 漂着說〉《제주도》40, 1968.
 - 韓贊奭：〈愛農偉人列傳一金萬德 一〉《농검월보》1964.
 - 金泰能：〈에국충의의 明臣一桐溪 鄭蘊先生〉《제주도》45, 1970.
 - ：〈和蘭國 漂流人 벨데브레의 行績〉《제주도》46, 1970.
 - ：〈金萬德의 生涯와 行績〉《濟州新聞》1971. 10. 12~11. 4.
 - ：〈盧氏부인과 가지·가마귀와 安德溪谷의 任觀周詩〉《제주도》52, 1971.
 - 高南俊：〈三旌閣의 家門을 이룬 朴繼昆〉《교육제주》35, 1977.
 - 金東醒：〈어머이 供養에 一貫한 夫千謙〉《교육제주》35, 1977.
 - 金榮治：〈忠孝를 兼全한 遺腹子 李弼完〉《교육제주》35, 1977.
 - ：〈都近川의 구슬인 孝婦 金玉〉《교육제주》35, 1977.
 - 金亨翹：〈正道를 몸소 實踐한 洪達漢〉《교육제주》35, 1977.
 - 文仁環：〈媳父母를 잘 모신 孝婦 崔氏〉《교육제주》35, 1977.
 - ：〈이웃을 잘 돌본 模範人 玄達祥〉《교육제주》35, 1977.
 - 咸元擇：〈獨身으로 一貫한 孝子 高允文〉《교육제주》35, 1977.
 - 金寶鉉：〈태산도 혼들었다—尤庵 宋時烈〉《제주도》45, 1970.
 - 秦元日：〈嘉樂泉 물은 흐른다—五賢의 行적—〉《제주도》45, 1970.
 - 秦元日：〈民主主義씨앗—濟陰 金尙憲先生〉《제주도》45, 1970.
 - 權寧徹：〈瓶窩 李衡祥 研究〉韓國研究院 1978.
 - 玄吉彥：〈역사적 사실과 文學적 인식—李衡祥牧使의 神堂칠폐에 대한 실화적 인식〉《耽羅文化》2, 1983.
2. 地理關係
- 吳洪哲：〈耽羅地圖의 性格〉《제주도》61, 1973.
 -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濟州島研究》：1, 1984.
3. 資料關係
- 李丙燾：〈蘭船 濟州島難破記〉《震禮學報》1·2·3, 1934~1935.
 - 《하멜漂流記》—潮閣, 1975에 재수록
 - 鄭炳昱：〈張漢喆; 漂海錄〉《人文科學》6, 1961.
 - 《漂海錄》汎友社, 1979.
 - 金泰能：〈李健著 濟州風土記〉《濟州新聞》1964. 12. 13~12. 23.
 - 《耽羅文獻集》에 재수록.

- 金行玉譯：〈李元鎮；耽羅志〉《제주도》 46~59, 1970. 11~1973. 5.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에 재수록.
：〈宋時烈；謫廬遺墟碑〉《교육제주》 36, 1977.
- 朴用厚譯：〈金尙憲；南槎錄〉《교육제주》 19~21, 1972. 8~1972. 11.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에 재수록.
- 洪貞杓：〈1700年代初에 보배一耽羅地圖并序〉《제주도》 58·59, 1973.
- 權寧徹：〈耽羅巡歷圖에 대하여〉《교육제주》 65, 1975.
：〈南宮博物誌 解題〉《제주도》 66, 1975.
- 교육제주면찬실：〈濟州 餓死民을 위한 祭文〉《교육제주》 30, 1975.
- 梁淳珽：〈李健의 濟州風土記考〉《韓國言語文學》 16, 1978.
- 淸權祠：《瓶窩年譜》 1979.
- 韓國精神文化研究：《院耽羅巡歷圖·南宮博物》 1979.
：《瓶窩全書》 1982.
- 亞細亞文化社：〈耽羅誌〉〈濟州邑誌〉〈濟州·大靜·旌義邑誌〉《邑誌》 6, 1983.